

한글의식집간행...신행혁신

'자유로운 나 평화로운 세상' 위한 수행전략 등 발표

조계종 포교원 10년대계, 단계별 계획도

"향후 10년의 포교는 불자 신행 혁신과 조계종 핵심신도 양성에 달려 있다."

"자유로운 나 평화로운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건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이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포교 10개년 계획을 1월 26일 발표했다.

별원 10주년을 맞은 포교원이 향후 10년 동안 가장 주력할 일은 불자 신행혁신과 조계종 핵심신도 양성. 이를 위해 수행 플러스 포교전략을 세우고 14개 핵심 포교과제와 단·중·장기 사업 계획을 준비했다. 포교원이 제시한 각종 사업은 총무원 문화·사회부 등과 협력 진행하는 것도 있어 주목된다.

포교원이 내세운 14개 핵심 포교과제는 △신도 정체성 확립 △핵심신도 양성 △신도 교육·수행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법회 의례의식의 개선 및 한글화 △중년 포교 행정

시스템 활성화 △계중·단체간 네트워크 시스템 구현 △포교전문인력의 네트워크화 등이다. 또 △분야별 포교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미디어 포교 활성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청년) 포교 활성화 △중·장년층 포교 전략 강화 △사회·문화 포교 정책 기반 조성역량 강화 △전략지역(신도시, 농어촌 등) 포교 활성화 △국제 포교 활성화 등이다.

포교원이 단기(1~2년) 전력부구할 과제에서 눈에 띄는 사업은 한글 다비 천도 상용의식집 간행. 2월 중 발간을 앞두고 있는 한글의식집 제작으로 전통의식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개발해 대중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찰에서 신도 기본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 교육 실시 여부를 주지 인사사고과에 반영하는 신도 기본교육 강화 계획도 밝혔다.

중기(3~5년) 사업에는 신도 정체성 확립방안, 신도 교육 수행 체계화

와 위계제도화, 의제 정비, 핵심신도 양성방안, 사부대중 수행공동체 결사 운동, 신도입원 연수교육 체계화, 프로그램 개발, 신도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신도 정체성 확립에서부터 수행 교육 체계 정립에 이르기까지 신도 중심의 사업들이 포진하고 있다.

장기(5년 이상) 사업에는 각 분야별 인력 네트워크 구축과 수행형태 연구 등 좀더 깊고 전문적인 연구사업들이 있다. 특히 인터넷 중앙-교구분발사·단체 정보서비스 인력, 언론·방송인, 해외 주요 포교거점 및 인력, 수행상담실 등을 네트워크로 구축,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찰의 유아·어린이·청소년 제작으로 전통의식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개발해 대중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찰에서 신도 기본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 교육 실시 여부를 주지 인사사고과에 반영하는 신도 기본교육 강화 계획도 밝혔다.

중기(3~5년) 사업에는 신도 정체성 확립방안, 신도 교육 수행 체계화



1월26일 열린 제42회 동학사강원 졸업식. 사진=박재원 기자

"배움의 바다 한발 더 나아가..."

전국강원 졸업식 이어져

청암사 강원 졸업식(1월 19일)을 필두로 조계종 교육원 산하 승가교육기관들의 졸업식이 일제히 시작됐다.

윤문사강원과 윤문승가대학원은 21일, 동학사는 26일에 졸업식이 치러졌다. 또 봉영사 강원과 금강출원, 삼선 강원도 28일에 졸업식을 치렀다.

통도사 화엄사는 2월 21일, 해인사(출원포함) 송광사(출원포함) 백양사 수덕사 범주사는 22일, 범어사 직지사 쌍계사는 23일, 동화사 강원은 24일, 파계사는 3월 5일 졸업식을 연다.

이밖에 통도사 영산출원이 2월 22일, 은해사 승가대학원이 25일, 어산작법학교가 26일에 졸업식을 봉행한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4급 승가고시 3월25일 중앙승가대

조계종 4·5급 승가고시가 오는 3월 25일과 4월 6일 각각 실시된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일정을 확정했다. 고시 장소는 4급의 경우 중앙승가대에서 치러지며, 5급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고시위원회는 또 4·5급 승가고시 예상문제집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지적에 따라 개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올봄부터 3년과정 전문어산학과 신설

조계종 교육원, 이수자에 '선원4안거' 특전

조계종에 불교의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1월 25일 교육원 회의를 열고 현 2년 과정인 어산작법학교 내에 3년 과정의 전문어산학과를 신설하고 3월부터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조계종이 전문어산학과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어산작법학교만으로는 불교의식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어렵고 불교문화를 계승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산전문학과가 설치됨에 따라 어산작법학교 교육은 2년 기간의 본과 과정과 3년 기간의 전문과정으로 강화된다. 불교어산작법학교는 본과(어산과), 작법과, 불전의식과가 있으며, 본과는 2년 과정에 법배, 신중작

법, 산주관공 등을, 작법과와 불전의식과는 각각 6개월 과정으로 바라무, 도량석, 각종 시식, 예경 등 제반의식을 배운다.

이 세 종류의 학과 중 본과는 조계종 스님만 입학이 가능하며, 작법과와 불전의식과는 다른 종단 스님이나 재가자의 수감이 가능하다.

여기에 새로 생기는 전문어산과는 상주관공을 주로 가르치며, 본과를 마친 사람에게만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사실상 불교의식 대학원인 셈이다.

따라서 전문어산학과 졸업자에게는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인 '선원 의무 4안거'를 면제받는 특전이 주어진다.

사실 조계종과 태고종을 합쳐 불교의식을 가르치는 공식 기관이 서

너 곳에 불과하고 또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배우기도 쉽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하면 전문어산학과 설치의 의미가 크다.

현재 불교의식을 가르치는 종단의 공식기관은 조계종의 경우 어산작법학교 한 곳 뿐이고, 태고종에는 국가무형문화재 50호인 영산재보존회 부설교육기관인 범음불교대학과 동방불교대학 법배과, 육천 범음대학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사설학원과 같은 형태의 불교의식 교육기관이 20~30여 곳 정도 있지만 공식기관은 아니다.

태고종 범음불교대학 사무차장 법배 스님은 "적어도 10년은 공부해야만 다소간의 깊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불교의식은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쉽지 않다"며 "불교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차원에서 의식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행자교육 최대 2년 연장하자"

조계종 승가추, 여론수렴해 결정기로

현행 6개월의 행자교육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늘리는 조계종 승가교육제도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이하 승가추)는 1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초교육과정(행자교육) 1년-기본교육과정(사미교육) 4년 ▲기초교육과정 2년-기본교육과정 4년의 두 가지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각종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승가추가 기초교육과정에 대해 두 가지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조계종 승가교육제도 개선방향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안은 현행 행자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눈여겨 볼만하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역시 행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행자교육을 상설행자교육원에서 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한명우 기자

"행자교육 최대 2년 연장하자"

조계종, 신기남의원에 감사패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사진)이 부친인 故 신상묵 씨가 한국전쟁 당시 구해 화엄사를 전소 위기에서 구한 공로로 1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산 스님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법산 스님은 故 신상묵 씨에 대해 "장군보다 더 큰일을 하신 분"이라고 칭송하며 "후대에 게 역사를 바로 인식시키기 위해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주한 교황대사 체릭대주교 법상스님 예방



법상 스님이 체릭 대주교를 반갑게 맞고 있다.

제9대 주한 교황 대사 에밀 폴 체릭(Emil Paul Tschernig·57) 대주교

남동우 기자

가 1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상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법상 스님이 "모든 종교는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지만 시비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부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가르쳤다. 욕심을 버리면 모두가 자유스러워진다"며 불교와 가톨릭이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체릭 대주교도 "예수님도 같은 가르침을 가르쳤다"며 인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성탄트리' 재발방지 촉구 종평위, 논평발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산식, 이하 종평위)는 '서울시 성탄 트리'와 관련해 1월 26일 논평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종평위는 논평에서 "시청광장의 관리는 시청이 하고 사울 허기는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서울시민과 국민이 사용해야 하는 사회적 공간"이라며 시청광장 시설물 설치와 허가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종평위는 또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는 앞으로 시정에 의욕과 의구심이 유발되지 않도록 더 신중하고 공정하게 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종평위는 1월 14일 서울시에 '성탄 트리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서울시는 1월 21일 1월말 이전에 설치물을 철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었다.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영산재보존회 옥천범음대학 2005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실기강의

학년	강의내용	교수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전수교육조교 이기봉	50명
2학년	각배과	준보유자 김구해	50명
3학년	영산과	전수교육조교 마일운	50명
이론	불교의식각론	교수 심만춘	-

2. 응시자격

승려·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3) 증명사진 3매(반명함)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5년 2월 10일 ~ 3월 4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6. 합격자 발표

2005년 3월 5일

7. 입학일

2005년 3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봉원사 설법전)

8. 특 전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9. 문 의 처

☎ 20 - ☎ 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1 392-3234

종무소 021 392-3007~8 / 팩스 021 393-9450